



가금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가금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여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며 주로 달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체는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구분되는데, 이중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질병을 유발하는 A형 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두가지 단백질(Hemagglutinin, Neuraminidase)의 종류에 따라 H혈청형과 N혈청형으로 구분하여 H5N2, H9N2 등으로 표기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1혈청형에는 15가지, N혈청형에는 9가지의 종류가 있으므로 존재 가능한 혈청형은 135가지(15×9)가 된다. 이처럼 혈청형이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교차면역 반응이 없거나 약하여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청형에 관계없이 방어와 관련한 항원이 없으므로 백신 개발이 어렵다.

가금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호흡기증상과 산란율저하 및 폐사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산란율 감소 때에는 무사 또는 연가란이 관찰되고 종려 적하와 사료섭취 감소, 육수와 비설의 청색증, 허리와 인면부의 부종,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 등을 볼 수 있다.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산란정지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번 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의 육산물 교역에서도 AI 발생국으로부터의 양계산물 수입을 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방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홍콩 등지의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닭고기나 계란 등으로 인해 사육이 감염된 경우는 보고된 것이 없으며, 70년 이상의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중인 닭·오리고기 및 계란을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익혀서 먹을 경우 가금인플루엔자의 감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1.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을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갈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사육 농가와 오리사육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시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전 사육 운반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시료 공급은 반드시 일 것
 - 벌크시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 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지을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광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족운반차량(이리상차량)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사육 농가와 오리사육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사육 농가간 무임도 지양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부착
 - 농장부를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두심크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